

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Aviva, 유럽중심의 성장전략 채택

- Prudential이 최근 AIA(American International Assurance)를 인수함으로써 글로벌 보험시장 경영에 치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반면, 라이벌 관계를 형성해 온 Aviva는 유럽의 보험시장에 더욱 중점을 두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두 라이벌 보험그룹의 경영전략이 대조되는 모습을 보임.
 - Aviva는 2008년 현재 수입보험료 기준 랭킹 1위(약100억 파운드)의 보험그룹이며, Prudential은 5위(약76억 파운드)의 보험그룹이나 Prudential이 생명보험 사업만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이들 두 그룹은 생명보험시장에서 수위를 다투는 라이벌 관계를 형성해 온 것으로 알려짐.
- Aviva는 아시아지역의 보험수요가 높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증가하겠지만, 유럽은 노년층의 저축수준이 높고, 이들의 은퇴 대비 보험수요가 높기 때문에 유럽의 보험시장을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임.
 - 유럽의 경제성장이 저성장 추세를 보여주고 있지만, 유럽의 보험시장은 아시아 보험시장보다 매력적인 측면이 있다고 주장함.
 - 보험수요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률이 아니고 절대적인 소득수준인데 유럽은 그 어느 지역보다 높다고 언급함.
 - 유럽은 저축수준이 높고, 보험수요의 규모가 크며, 특히,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의 보험수요는 아주 높다고 지적함.
 - 한편, 유럽 보험시장은 안정적이고, 법규측면에서 리스크가 낮은 반면, 아시아 보험시장은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지만, 소비자보호 경향이 높은 감독방향으로 인해 수익성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함.
 - 아시아지역 보험감독은 소비자보호 경향으로 인해 보험판매 관련 감독방향이 퇴행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함.
 - Aviva는 러시아, 터키에서 조인트벤처의 형태로 진출하는 등 합병보다는 유럽을 기반으로 하는 내적 성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임.
- 이에 대해 Prudential은 부채비율이 높은 유럽 금융회사의 재무구조가 부채비율이 낮은 아시아 금융회사의 재무구조보다 더 건전하며 리스크가 더 낮을 수 없다고 반박함.

(Financial Times 3/5, Guardian 3/7)